#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사순 제2주일** 2016.2.21.(다해) 제1986호

**문경 마원성지**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루카 9,29)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수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상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천상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수난과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와 보속의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도 부활을 희망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1독서** 창세 15,5-12.17-18 **제2독서** 필리 3,17-4,1 **복 음** 루카 9,28ㄴ-36.

**입 당 송**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 삶을 향하는 길

이상해 스테파노 신부 | 대안본당 주임

"주님,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기쁨과 환희를 뒤로 한 채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행진인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이란 현세에만 머물지 않는 하늘나라를 향한 길이며, 스승과 함께 하는 길이며, 하느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잠을 자다가 어느 한순간에 맞이할 수 있는 요행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계절 속에 있으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처럼 지금 이 자리에만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난 뒤,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구세주이시며 메시아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들도 당신처럼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산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산은 죽음과 고통을 넘어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내 곁의 사람들이 실업과 자살로 삶을 포기하는 이 마당에도, 함께 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하고 한순간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뱃속을 하느님처럼 섬기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하고, 세속의 사물에만 마음을, 온 정신을 빼앗기며 삽니다.

그렇다보니 욕심에, 외모에, 다른 사람의 관심에는 당당하지만 자신의 내적 변화에는 언제나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열리지 않게 만들며 빈껍데기의 변화만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의 선택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없다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지금의 현세적인 만족감, 순간적인 만족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중한 삶과 앞날의 운명을 모두 하느님께 맡기고 산을 내려와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은 현세적인 두려움도, 핍박도, 분열도, 수고도, 불행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순간적인 황홀감에 젖어 그곳에 머물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묵묵히 스승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산인 골고타에 올라가도록 노력합니다. 아멘.

교회문화 산책

# 성 프란치스코 '피조물의 찬가'와 마크 로스코 . 1

백미혜 크리스티나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주님께서는 태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시나이다. 태양은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를 내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모습을… (성 프란치스코 '피조물의 찬가' 중)

무제/캔버스에 아크릴/152.4 * 145.1cm/1970

'교회문화 산책(성화 묵상)'을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현대미술은 더 이상 재현(reality)을 구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흔히 일반적으로 "잘 그렸다."라고 말하는 그림이 아닌 추상화된 성화를 중심으로 제가 묵상을 하려 한다는 것도요.

추상화라니…왠지 좀 어려우실 것 같죠? 예, 맞아요. 더욱이 미술품경매시장에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이라는 것이 기실 점, 선, 색면 몇 개 나누어 놓은 것일 때에는 당혹스럽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렘브란트에 버금가는 거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의 영성이 드러나는 새로운 형식의 성화들이 많이 있답니다.

저는 마크 로스코를 그런 화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림 안에 단 한 개의 십자가도 그리지 않고 〈로스코 채플〉에 십자가의 길을 완벽하게 표현한 14장의 벽화를 남겼어요. 〈로스코 채플〉은 미국 시카고주 휴스톤에 있지요. 그곳을 찾는 많은 관람자들은 그의 그림 앞에서 먹먹해져서 걷잡을 수 없는 속죄의 눈물을 흘리곤 한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그림은 로스코가 죽기 직전에 그려놓은 희생, 즉 피의 꽃입니다. 태양은 찬란한 광채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림 속에 온갖 미세한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로스코의 아름다운 색면은 우리 내면을 바닥까지 적셔 색채 그 이상의 거룩한 세계로 띄워 올립니다.

그림은 현재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소장 되어있고, '피조물의 찬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수록된 번역문을 인용함.

# 가정은 희망의 공장

강영목 요한보스꼬 신부 | 교구 가정담당

가정… 가정…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그러나 가장 작지만 중요한 공동체. 가정사목담당으로 발령을 받고 우연히 인천교구 가정사목부국장 신부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나보다 먼저 가정사목 일을 오랫동안 하신 신부님이시기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다. "신부님, 어떻게 하면 가정사목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신부님이 웃으며 농담으로 말을 받으신다. "신부는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사목을 잘 할 수 있습니까? 하하하.", "하하하 그러네요." 같이 웃었지만 웃는게 웃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도 지난 미국에서 있었던 세계 가정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가정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정이 가진 하늘나라 시민권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마음에는 항상 더 많은 진리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교황님, 교황님께서는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싸웁니다. 때때로 접시도 날아다니고 아이들이 골치를 썩입니다. 시어머니나 장모님 얘긴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2015년 9월 26일 세계가정대회 중 교황님의 연설에서)

그러나 교황님은 모든 가정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라 하셨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십자가가 없는 우리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삶을 고대하며, 또 현재를 부활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믿는다. 이 시대에도 가정 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라는 십자가가 있다. 그러나 가정은 바로 희망의 공장이라 하신 교황님의 말씀처럼, 소중하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보다 나은 현실로, 참된 가정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바람과 희망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의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가정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기회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마리아와 요셉이 하였듯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일상 안에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합시다."(2014년 12월 17일 일반 알현에서)

그렇다. 오늘날의 위기이자 또 다른 희망을 지닌 가정 안에 주님께서 자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 가정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역할이다. 또한 교회가 오늘날의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심어주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교황님 이야기

# 교황님의 이름

교황선거에서 차기 교황으로 선출된 새 교황님은 교황직의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름을 버리고 평소 존경하던 성인이나 전임 교황의 이름을 골라 교황명으로 삼아 공표하십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개명(改名)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 교황님이신 성 베드로 사도 이후 1000년간 교황님들은 거의 대부분 본인의 세례명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이 교황명을 정하신 교황님은 요한 2세(533~535년), 요한 12세(955~964년), 세르지오 4세(1009~1012년) 교황님 3분에 불과한데 본래 이름이 이교도 신을 지칭하거나 또는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하거나, 괴상한 뜻을 지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교황 요한 2세

본격적으로 개명하는 관습이 정착된 것은 클레멘스 2세(1046~1047년) 교황님 이후였습니다. 교황명 개칭 관습에는 베드로 좌에 오르신 새 교황님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 지상 최고의 다리를 놓는 새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로마 주교 수위권이 강화되고 교황직무가 강조되면서 다른 교구장 주교와 차별을 두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역대 교황명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이름은 '요한'으로 지금까지 통틀어 21분의 교황님께서 이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그레고리오'(16분), '베네딕토'(15분), '클레멘스'(15분), '레오'(13분), '인노첸시오'(13분), '비오'(12분) 등입니다. 특이한 것은 '베드로'라는 교황명은 초대 교황이신 베드로 사도 이후 단 한 분도 교황명으로 정한 적이 없다는 점인데 베드로 사도를 향한 주님의 명명(마태 16,18)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고 합니다.

또한 두 분의 교황님 이름을 합쳐서 개명한 교황님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처음이신데 전임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의 이름을 모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전임 교황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현재 제266대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전임 교황들의 이름을 따르지 않으시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시면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란 이름을 대신해 '프란치스코'로 교황명을 정하셨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프란치스코

## 교구장 동정

■ 선교사제 파견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2월 11일(목)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선교를 떠나는 이수환, 김요한, 구승모 신부의 선교사제 파견 미사를 봉헌하셨다.

■ 2016년 상반기 사제연수

대주교님께서는 2월 16일(화) 오전 10시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상반기 사제연수에 참석하셨다.

## 교구 행사

2.21(일) _ 가나강좌(9시 30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마리아관 강당)
교리교사학교 입문과정 1차 수료미사(14시,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청소년 견진성사(14시 30분, 성 김대건 기념관)
2.24(수) _ 평신도위원회 회의(19시 30분, 교구청 별관 사목국)
2.25(목) _ 30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1주차 교육(9시 30분, 칠곡성당)
2.27(토) _ 파스카 만남의 잔치(17시, 대안성당) / 비다누에바 만남의 잔치(19시, 삼덕성당)
2.28(일) _ 교리교사학교 입문과정 2, 3차 수료미사(14시,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 소식

생명은
가장 큰 하느님의 선물

**〈생명사랑운동 참여 방법〉**

**1. 가정 성화 및 생명 수호 미사 참례**

일시 및 장소 : 1월~11월(매월 마지막 월요일 11시), 성모당
특전 : 자비의 희년 전대사 부여

**2. 생명사랑 기부 참여**

특별 기부(개인 및 단체) / 일반 기부(매월 5천원 이상 기부)
계좌번호 : 대구, 505-10-173562-7 / 국민, 612901-04-227935
문의 : 053-250-3007

⑥ 사순 제2주일

## 미 사 안 내

| | | | |
|---|---|---|---|
|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 2월 22일(월) 11:00 황성성당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 2월 23일(화) 14:00 신암성당 |
|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 2월 22일(월) 11:00 도량성당 | | 2월 23일(화) 19:30 다사성당 |
| 대구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 2월 22일(월) 11:00 계산성당 | | 2월 24일(수) 10:00 죽도성당 |
|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 2월 22일(월) 11:00 수성성당 | | 2월 24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
|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 2월 24일(수) 10:00 평화성당 | | |

## 성소 | 피정

###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3.5(토) 14:00~18:00
장소: 남대영기념관(현충로역)
주제: 사순절과 예수고난회 영성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형제들
문의: 마리오 신부, (010)7507-6005

### 예수마음 일일 피정
일시: 3.7(월) 10:00~17:00
주제: 기도와 치유
지도: 권민자 수녀, 여영환 신부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 작은예수회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2.26(금)~28(일)
장소: 가평 작은예수회 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데레사, (010)2646-0583

### 주말 피정(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기간: 2.27(토)~28(일)
장소: 보은 메리워드영성의집
대상: 기도하고픈 청·장년 누구나
문의: 예수수도회, (010)2412-0268

### 제주도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3.4~7 / 3.13~15 / 3.17~19
3.28~31 / 4.2~5 / 4.7~9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 교육 | 모집

### 바오로딸 행복한 책읽기
일시: 3.3(매주 목) 14:00~17:00
장소: 공평동 바오로딸서원
내용: 자아성장과 신앙의 성숙
대상: 40~60대 여성 / 12만 원(10회)
문의: 최쥬세피나 수녀, (010)3788-8579

### 말씀학교 영성강좌 / 사도행전
개강: 3.10(목) 10:30~12:50
장소: 대명성당(수강료 무료 / 년 29주)
프린트물 무료 제공 / 매주 미사있음
강사: 양은철(안드레아) 신부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010)9333-6260

### 성경인물(피규린)과 함께 하는 성경공부
기간: 3.10~6.2 매주(목) 14:00~16: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파동 73-15)
교육비: 8만 원(13회기)
문의: 783-9817 / (010)3360-9817
http://www.happysister.net/vatelot

### 대가대 평생교육원 2016-1학기 모집
학점은행: 사회복지, 아동, 음악, 보건
음악원(1:1레슨)취미·교양, 자격증과정
모집: 2.26(금) / 문의: 660-5554~7

### 19회 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해외봉사
기간: 2차 2.27 / 3차 3.26(8주 이상)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 센터
내용: 주중영어연수, 주말해외봉사활동
기타: 호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예비모임: 3.22(화) 13:0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준비물: 교적,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사진
대상: 성모님 안에서 살고픈 신자
문의: 지도수녀, (010)4622-4819

###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모집: 3.31(목)까지
대상: 성경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문의: (031)8017-4239
http://cyberbible.casuwon.or.kr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한투어 HANTOUR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2016년 6월초
산티아고 도보순례단 모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억기(바오로) 010-3514-3855

치질수술 내 시 경 건강검진 通 하는 병원
대형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입원실
www.hangmuns.com
늘시원한 위대항 치질 내시경 병원
병원장 노성균 의학박사 아우구스티노
산격동 대우아파트앞 959-7175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건어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윤용현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용 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 행사 | 모임

### 2016년 상반기 2박 3일 성령세미나
기간: 3.11(금) 13:00~13(일)(647차)
기간: 5.13(금) 13:00~15(일)(650차)
기간: 7.29(금) 13:00~31(일)(652차)
출발: 성모당 11:40 / 회비: 12만 원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 가톨릭미용인회 모임
기간: 2.22(월) 20:00~23(화) 12:00
장소: 달비골가톨릭교육원
(달서구 상인3동 1592-1)
대상: 가톨릭신자 미용인 모든 분
문의: (010)6560-3086

## 교육 | 모집

### 제28기 대구가톨릭음악원생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39차 ME주말: 2.26(금) 19:00~28(일)
쇄신8차: 4.2~3(ME주말체험부부대상)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시: 3.20(일), 오륜대순교자성지
신청: 2.24(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찾습니다 / 연습: 매주(일) 18:00
오디션 후 파트결정합니다.
문의: (010)3817-1963 / (010)3057-0707

### 가톨릭근로자회관 3월 영어성경공부 모집
개강: 3.2(수) / 월 3만 원
창세기: 월, 수 10:10, 15:00, 17:00
낮중급: 에페소·여호수아(화, 금 10:10)
저녁: 여호수아·2코린토(화, 목 19:10)
집회서: 목 10:10 / (010)6506-3303

###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 동화구연2급, 오카리나, 수지침, 심리상담사2급, 가곡성가, 발성법, 필라테스, 하모니카성가, 미술심리상담사2급, 문학창작소설, 왕초보관광영어,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 신청: 254-6115

### 앞산밑 북카페 3월 7일 개강
서양철학산책: 허찬욱 신부(월 10:30)
서유기 읽기: 최동석 신부(월 14:30)
공자와 공부하기: 최성준 신부(화 14:30)
떼이야르: 이문희 대주교(수 10:30)
문의: 앞산밑 북카페, 622-1900

### 가톨릭신문사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4.23(토)~5.5(목) 12박 13일
장소: 이태리, 크로아티아, 메주고리예
경비: 내측 518만 원~발코니 568만 원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 통기타, 우쿨렐레, 플룻, 오카리나, 바이올린, 성인생활영어회화, 성가반주법, 동화구연·시낭송지도자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뎃생·유화·수채화
문의: 476-6211(지하철1호선 교대역)

###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3기 원우 모집
개강: 3.14(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 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 채용 | 안내

### 하양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 능숙한 남자 사무장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마감: 3.20(일) / 문의: 852-2715

### 성정하상성당 사무직원, 관리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 방문접수
문의: 성정하상바울로성당, 767-0920

### 2016년 신앙다이어리 판매
판매가: 10,000원
판매처: 교구 문화홍보실,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딸서원, 삼덕성당 임마꿀라따 성물방, 동천성당 성물방

"엠마우스를 성지와 함께"
일본성지순례
(히라도, 나가사키)
출발일 : 2016년 4월 11일 (3박 4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철 래(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나비피부과
(여드름/기미/모공)
피부과 전문의 / 원장 김창욱(라파엘)
053.253.7582
동성로 롯데영플라자 맞은편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한복의 모든 것, 명장의 손으로
T. 053)421-2827~8
HP. 010-3826-2827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녜스)

K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녜스) 010-5048-7739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척추 관절 중점 병원
척척병원
WISE MAN Hospital - Spine & Joint
정형외과전문의 곽 은 석(디모테오)
신경외과전문의 신 철 식(요한)
T. 053)718-7700 www.wisemanhospital.com
대구 북구 읍내동 1208-2 (칠곡시장 맞은편)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묵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